활주로 옆 잔디 깎다 숨진 여성

▲ 사진=ctvnews.ca

캐나다의 한 비행장 활주로 근처에서 잔디를 깎던 여성 관리인이 착륙 중이던 비행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7세의 이 여성은 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맡고 있는 한 업체의 직원으로 지난 5일 퀘벡주 생테스프리 비행장 활주로 근처에서 트랙터를 몰며 잔디를 깎고 있었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반면 사고기의 조종사는 외상은 없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생테스프리 비행장은 민간 항공기가 주로 이용한다. 이번 사고를 낸 조종사는 본인 소유의 비행기를 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는 이번 사고에 관한 조사에 나서 사고 당일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사고기와 트랙터를 조사하는 등 현장에서 여러 증거를 수집했다.

TSB에 따르면, 사고기는 중국산 훈련기인 난창 CJ-6이라는 기종으로, 캐나다에서는 보통 자가용 비행기로 쓰인다.

크리스 크렙스키 TSB 대변인은 "사고 당시 날씨는 바람이 조금 불고 고도 약 1,200m 부근에 구름이 조금 껴 있었지만 시계 비행(VFR)에 적합했다." 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는 몇 주부터 몇 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캐나다에서 TSB에 보고된 항공교통 사고는 모두 170건으로 이중 무려 114건이 자가용 비행기와 관계가 있으며 관련 사망자는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률 100대1 미스뚱보대회

여성의 미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깨는 대회인 미스뚱보대회가 3일 파라과이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회에선 농업인 타티아나 아키노(32)가 치열한 경쟁 끝에 왕관을 썼다.

2021년 미스뚱보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개최가 결정된 가운데 파라과이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면서 유난히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까지 참가신청을 내면서 대회에는 3,000여 명이 참가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결전에 나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33명이었다. 100대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미스뚱보 여왕으로 뽑힌 아키노는 "많이 개선됐다지만 아직도 뚱뚱한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존재한다." 면서 "미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깨는 데 일조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난 같은 대회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참가자들은 그 어느 대회 참가자들보다 열성적이다.

대회 설립자 마이크 베라스는 대회를 열게 된 계기에 대해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차별을 받는 건 물론 옷을 구입하거나 취업을 할 때도 불이익을 당해 사회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며 "뚱뚱한 사람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극단적인 시각까지 존재하더라." 고 말했다.

▲ 사진=larepublica.pe

뚱뚱한 사람의 자긍심 회복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미스뚱보대회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최 측은 비만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주최 측은 "지나치게 뚱뚱한 사람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비만은 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미 서부 해변, 폭염에 조개 집단 폐사

▲ 사진=instagram/hamahamaoysters

최근 기온이 120° F 이상 치솟은 미국 워싱턴주의 한 해변에서는 조개들이 마치 찜기로 찐 것마냥 입을 쩍쩍 벌린 채 폐사했다.

워싱턴주 메이슨카운티 릴리워프에 있는 한 해산물 전문 식당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드 운하에 있는 조개 양식장에서 조개들이 입을 벌린 채 집단 폐사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폭염으로 조개 외에 해변에 사는 다른 해양 생물들 역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식당 측은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폭염은 이전에 본 적이 없다. 정오 때 양식장에 있던 물이 썰물처럼 사라졌다." 면서 "폐사한 조개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익어버린 것 같다." 고 말했다.

식당 측은 SNS를 통해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처할 용기가 있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해 달라는 말로 게시글을 끝맺었다.

기상국에 따르면 폭염의 원인은 차고 더운 공기를 섞어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져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생긴 열돔 현상 탓으로 추정된다.

래리 오닐 오리건주립대 교수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기후 변화의 증거를 보고 있지만, 태평양 북서부에서는 아마 이번 세기 중반까지 정말 중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들이 목격되기 시작할 것" 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사건은 벌써 일어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